

虎溪 申適道の 生平과 義兵活動

金 泰 鵬 *

目 次

- I. 緒言
- II. 生平 및 義兵活動
 - 1. 生平
 - 2. 丁卯胡亂 時の 義兵活動
 - 3. 丙子胡亂 時の 義兵活動
- III. 結言

I. 緒言

17세기 전반에 일어난 丁卯·丙子胡亂時, 義城 義兵將으로 倡義하여 憂國衷情을 몸소 실천했던 虎溪 申適道(1574-1663)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렇듯 그에 대한 연구가 조명을 받지 못한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生平上에 창의한 이력 이외에 어떤 다른 특징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그의 행적을 간단히 일별키로 하면 다음과 같다. 그의 행적은 32세 때 鄉試에 한 차례 응시했던 것과 47세 때 영예직인 氷溪書院 院長職을 수행한 것, 그리고 정묘란 때(54세) 의성 의병장으로 창의했다가 난후 그 공을 인정받

*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국학부

아 祥雲道 察訪職에 제수된 것을 비롯하여, 병자란 때(63세) 또 다시 의성 의병장으로 창의하였다가 三田渡의 굴욕이후 줄곧 明나라를 尊尙하는 산림처사로 여생을 보냈던 것 등이 주요이력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는 의성지역을 대표하는 처사형 선비군의 한 사람임에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는 기실 퇴계의 薰陶를 받은 梅堂 申元祿(조부)으로부터 家學을 전수받고, 또 寒岡 鄭述(퇴계 급문제자)의 문하를 좇아 수학을 하였으니²⁾, 명실공히 16-17세기 퇴계의 제자들로 인맥이 형성된 安東處士層의 在野士林이었다.

안동의 선비들은 퇴계의 ‘難進易退’의 출처관을 영향받아 出仕보다는 학문과 후학양성을 더 중히 여기는 유풍속에 안동처사층을 보다 자연스러이 형성할 수 있었고, 또 당대의 정치적 상황도 광해조 때 집권한 大北派의 전횡과 이로 말미암은 그들의 정치적 독주, 그리고 仁祖反正 후 집권한 西人들의 중앙정계로의 대거진출등으로 말미암아 안동선비층의 南人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었으므로, 더욱 재야사림의 위치에서 향촌교화와 학문수양을 통하여 자기존재를 견고히 해나갔던 것이다.

이들 처사층은 출처방식이 순수처사들과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들은 통상 출사와 은거를 당대의 상황논리에 따라 어느 한 쪽을 취할 수 있는 가변적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처사형 선비들에게서 그들이 국가와 민생의 현안문제에 대해 아주 깊숙히 참여한 측면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할 신적도의 현실대응의식 또한 다른 처사형 선비들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었다.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묘란 이전까지의 그의 삶은 다른 처사형 선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촌의 재야사림으로 자기존재를 지켜나가는데 그쳤을 뿐 현실문제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1) 『虎溪先生遺集』, 권5 부록, , 「行狀」을 참고함. 이 『호계선생유집』은 安東大學 校 圖書館 所藏本이다. 이하 『호계선생유집』은 문집이라 표기한다.

2) 同上

둔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丁卯亂이란 미증유의 국난을 당해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분연히 몸을 떨쳐 일어나 우국충정을 펼쳤으니, 이로써 우리는 그가 취했던 몇몇한 현실대응방식의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이렇게 국난을 당해 항토 의병장으로서 구국의 대열에 앞장을 섰으면서도, 이 전쟁의 결과로 패전국 조선이 당하여야했던 치욕에 대해서는 또 한차례의 은거라는 방식을 통하여 상대국에 대해 저항의지를 나타내었다고 하는 그 점이다. 이러한 경우, 은거를 택했던 그의 삶은 후대에 어떻게 비쳐지게 될까?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즉 실리론의 입장에서 보느냐 명분론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이게 될 것이다. 즉 실리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尊明論에 입각한 그의 은거는 극단적인 현실회피로 비쳐질 것이고, 한편 명분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은거는 性理學的 華夷論(尊華攘夷)에 근거한 출처로 인정되어 그것이 처사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행위였던 것으로 평가되어질 것이다.

양란 이후 조선의 위정자들에게서 자주 거론되었던 北伐論이라든가 또 三學士(吳達濟·尹集·洪翼漢)와 같은 斥和論者들을 영웅시한 것을 본다면, 신적도의 尊明論은 성리학적 화이론의 시각에 따라 마땅히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그의 의병활동도 역시 後金·淸을 오랑캐로 이적시하는 강렬한 적개심의 발로로 나타난 義戰의 한 형태임을 고려한다면, 이 존명론과 같은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신적도의 의식을 그의 창의활동을 통하여 살펴보려 하는데 논의의 방향을 두고 있다.

II. 生平 및 義兵活動

1. 生平

신적도는 字가 士立, 호는 虎溪, 본관은 鵝洲이다. 좌승지로 추증

된 乞의 아들로 義城 陶巖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남긴 문집은 木版本 6卷 3冊으로 전해지고 있다.³⁾

아주 신씨는 金紫光祿大夫 益休가 공이 있어 아주에 봉해진 이후, 본관이 平山에서 分觀되었다. 신적도의 선조 가운데 版圖判書 尹濡는 그 청직함이 唐介(宋. 江陵人)에 비유되었고, 그의 아들 按廉使 退齋 祐는 고려가 망하자 冶隱 吉再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남하하였다. 父喪을 당하고 여묘살이 3년에 쌍죽이 돌아나는 기이한 일이 있어 이것이 나라에 알려지자 旌閭가 내려지는 은전을 입었다. 사마시에 급제한 신적도의 5대조 錫命은 詩聲이 낮으며 그가 거주지를 의성 元興洞으로 옮겨감으로써 이로부터 자손들이 의성에 세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찍이 退溪 李滉과 愼齋 周世鵬의 문하에 나아가 淵源之學을 득문한 바 있는 조부 悔堂 元祿은 효행이 뛰어나 호조참의에 추증되고 孝子門이 내려졌던 분이다. 이와 관련한 시 한 수를 소개해 둔다.

효의 근원 깊은 道源에서 나와	孝源由出道源深
내려진 임금은혜 하해같이 깊었네.	有隕恩波河海深
孔門의 이름난 孝는 曾參과 閔損인데,	聖門惟獨曾閔孝
만일 그들과 함께 나섰더라도 孝로 뛰어났으리.	若使生并特許深 ⁴⁾

3) 冊當 2권으로 편차되어 있다. 1책 권두에 柳必永이 叙한 문집 序가 나오고, 권1에는 시와 그 밖에 만사 13편, 疏 3편, 書 13편이 들어 있다. 만사는 신적도가 써준 柳成龍, 鄭述, 張顯光, 鄭經世, 崔旼, 申之梯, 李民成, 申楨, 李民賓, 權益昌, 崔山輝, 金淮, 申志道の 만장이다. 잡저 卷2에는 「性說」, 「庸學圖後識」, 「探薇軒記」의 9편과 「箴銘」 4편, 「祭文」 6편으로 짜여져 있다. 권 3, 4는 「倡義錄」을 실고 있다. 부록 卷5는 신적도의 셋째 아들 塚가 쓴 「遺事」와 金道和가 쓴 「行狀」, 또 고을 인사들이 신적도의 大節을 기리기 위해 세운 丹邱書院에 그와 懶齋公 悅道, 忍齋公(塚)의 위패를 봉안할 때, 李敦禹가 찬한 봉안문 및 金興裕가 찬한 「士林通文」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밖에 「墓表」, 「단구서원 상량문」의 몇 편이 더 게재되어 있다. 부록 卷6은 신적도에게 써준 張顯光의 9인의 서간문과, 鄭惟熱의 2인이 쓴 신적도의 제문, 그리고 金應祖의 20인이 쓴 만사가 실려있고, 이 밖에도 신적도의 타계후 204년이 되는 1867년(고종 4)에 이조참의로 증직되는 은전을 입었을 때, 이에 축하의 뜻을 부쳐준 김도화의 31인의 글(贈恩賀章)이 담겨 있으며, 권미에 후손 相憲이 쓴 『문집』 後叙와 李中久가 쓴 「跋」이 붙어 있다.

신적도는 성품이 粹美하고 재주가 총명하여 어릴 때 부터 이미 사물에 대해 깨닫는 것이 많았다. 자라면서 寒岡 鄭述의 문하에 출입하여 쌓은 건문이 많았으며, 또 旅軒 張顯光의 문하에 나아가 問難質疑하여 자주 칭찬을 받았었다. 두 아우, 즉 晚悟 達道·懶齋 悅道와는 서로 우애가 깊었으며, 또 蒼石 李竣·桐溪 鄭蘊·龍洲 趙綱·沙西 全湜·鶴沙 金應祖·修巖 柳袵과는 도의교를 맺어 한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게 친교를 하였다. 32세 때는 향시에 장원으로 뽑히었는데, 서애 유성룡이 그의 試卷을 보고 말하기를 ‘의리가 조목 조목 트였으니, 世儒가 가히 미칠 수 없는 바이다’라 하였으며, 愚伏 鄭經世는 이르기를 ‘신적도는 견식이 端的하여 吾黨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했다. 1620년(광해 12, 47세)에는 정권을 잡은 大北派가 廢母論을 제기하여 仁穆大妃를 西宮에 유폐시키는 悖倫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가담했던 方伯 鄭造가 의성 水溪書院에 왔다가 尋院錄에 이름을 쓰고 간 일이 있었다. 이에 이 서원 원장으로 있던 신적도가 분개하여 유생들에게 이르기를 ‘저 인륜을 멸한 亂臣賊子를 어찌 가히 士林의 列에 끼워 둘 수 있으랴’ 하고는 곧장 그 이름을 칼로 깎아내어 버리었다. 이 장면을 본 주위 사람들은 모두 놀래어 얼굴빛이 없었다. 과연 얼마후 鄭造에게 아침하는 奸人들이 鄭造에게 이 일을 알림에 그의 대로한 기운이 하늘을 뒤덮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화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이에 유생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달아나거나 숨어버리었다. 그러나 적도는 이 일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심문에 응하여 엄정한 辭氣로 곧곧한 자세를 보이니, 흉포한 鄭造로서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총명 특이한 재질로 家世相承之學을 이어받아 忠孝를 기본 삼고 敬義를 법도로 삼아 힘써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였다. 늘 깨닫기 어렵고 조처하기 곤란한 것이 있으면 師門에 나아가 더욱 그 의

4) 문집, 권1 시, 王考梅堂府君以孝學旌贈遂感吟

미를 깨치고자 하였으며, 또 『中庸』, 『大學』 두 경전에 대해서는 章句를 좇아 圖를 만들어 배우는 이들의 지침이 되게 하였다.⁵⁾ 그리고 자제들에게는 늘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였다. 즉 성균관에 遊學한 第二子 堦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아들에게 四書·程朱書·退溪書를 깊이 연구하도록하여 국가의 養士之本意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 하고, 또 영남선비의 務實之古範에도 저버림이 없도록 하라 하였으며,⁶⁾ 第三子 站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子思의 『中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권유하고 이를 潛心默會·熟玩深究하여 文義를 깨달도록 하라⁷⁾고 하고 있다. 이밖에 「家戒五條」를 통해서도 자제들에게 修身·齊家·務農·讀書·取友를 중요시하여 이로써 몸과 마음을 닦기를 가르치고 있다.⁸⁾ 그리고 그는 祖父의 遺業을 계승하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다. 즉 조부가 愼齋 周世鵬의 白雲洞書院과 業儒齋를 본받아 義城에다 長川院과 業儒齋를 세워 유학진흥을 도모했던 遺業을 후세도록 전하기 위해, 어느 날 의성 업유재에 모인 고을 유생들에게 업유재 복구문제와 講規를 다시 손질하는 문제를 거론하여 이전에 행해왔던 강학활동을 재현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의사를 정중히 내어 놓기도 하였다.⁹⁾ 이후 그가 米溪의 水石을 사랑하여 鄉人들과 장천원을 빙계에다 이견하여 藏修할 곳으로 만든 것은 바로 조부가 세웠던 장천원 그것이었다. 장천서원을 이견한 후 그는 후학양성을 위해 강학과정을 다시 엄히 정하였는데 그 규모와 절목들은 모두 조부께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후 정묘란이 일어난 1627년(54세)에는 號召使 장현광의 친거로 의병장이 된 그는 구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講和締結

5) 문집에 그가 만든 「庸學圖」는 전하지 않으며, 卷2 雜著에 「庸學圖後識」가 있다.

6) 문집, 卷1 書, 寄叔兒堦

7) 문집, 卷1 書, 寄季兒站

8) 문집, 卷1 雜著, 家戒五條

9) 문집, 卷1 書, 與業儒齋會中

로 그 뜻을 펴지 못하고 그 憤惋함을 上疏하여 和議論者들을 공격하였다. 이 소를 본 仁祖는 매우 홀륭히 여겨 그에게 祥雲道 察訪을 제수하였다. 병화를 겪은 뒤인지라 이 道는 公私間에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이곳에 부임하여 밤낮을 가리잡고 이곳 주민들의 불편함과 제민원사항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그들을 감동케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소생케 한 성과가 있었다. 이로 인해 그가 떠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이곳에 去思碑를 세웠다고 한다.

1632년(59세)에는 宰臣들의 천거로 齊陵參奉, 健元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한 차례 肅拜를 하고 곧 사퇴하였다. 병자년(1636년, 63세)에 또 다시 오랑캐가 침범하자, 의성 유생들의 추대로 의병장이 되었다. 이에 그는 정묘란 시의 분완함을 伸冤코자 더욱 결연한 의지로 倡義하였으나, 이 亂도 역시 강화체결로 우리 민족에게 三田渡 屈辱이란 一大 비극만을 남겨주었으니, 이 충격으로 그는 향리 은둔처(薇谷)에 칩거하여 山林處士로서의 여생을 보내다 향년 90세로 생을 마쳤던 것이다.¹⁰⁾

2. 丁卯胡亂 時의 義兵活動

인조 5년(1627) 정월 14일 貝勒 阿敏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한 後金 太宗의 3만 군사는 10여일 만에 義州를 돌파한 후 남하하여 安州·平壤을 거쳐 黃州까지 공략하였다. 이에 昭顯世子가 全州로 피난가고, 인조를 비롯한 조신들이 江華島로 피난가는 수난을 겪었던 것이다. 이 전쟁이 비록 40여일 만에 종식된 조선과 후금간의 싸움이었지만, 전쟁에서 패한 조선은 후금의 일방적인 요구로 兄弟之盟을 맺는 굴욕을 당하였다.

이 전쟁기간 중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침략군의 배후를 위협한

10) 이상에서 서술한 生平은 문집 권5 부록의 「遺事」, 「行狀」, 「墓碣銘并序」를 참고하여 요약한 것이다.

시기는 1월말부터 2월이었는데, 이 章에서는 당시 향토 의성에서의 병을 일으켰던 申適道를 중심으로, 그가 의병활동을 했던 한 국면을 고찰키로 한다.

강화도로 피난해 있던 인조는 백성들에게 敎書를 내려 국난극복에 血誠을 다해주기를 말한 곳에서, 강화도가 지형상 외적을 방어하기 어려운 곳을 條列하여 국난타개에 더욱 분발하기를 간망하였고,¹¹⁾ 또 나라 안팎의 大小臣僚, 耆老軍 閒良에게도 유시하기를, 그 자신이 정묘란 이전에 일어났던 李适의 난¹²⁾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정사가 더욱 혼란하였던 것과 군의 기강의 흐트러진 것을 잘 살피지 못하여 오늘의 禍, 즉 정묘란을 당하게 되었음을 통감하고, 재위한 지 4년에 두 차례나 당한 피난의 모욕이 전적으로 그 자신의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고 국난극복에 매진할 것을 갈구하였다. 이 교서에서 인조가 그 자신의 失策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는 그가 재위 초기에 백성을 위하여 조세를 경감하라는 슈을 자주 내려 민생안정을 도모코자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결국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亂을 일으킨 반란자를 治罪할 때 악인·두목을 처벌함은 물론, 그 연루자들까지 형벌을 가함으로써 억울하게 죄에 걸려든 사람들로부터

11) 문집 권3 향의록, 敎書

12) 이 난은 인조반정 공신의 한사람이었던 이괄이 반정후 논공행상에서 그 자신이 2등공신으로 밖에 들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奇益獻, 韓明璉 등과 함께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운운하며 일으킨 반란(인조2년, 1624)이다. 이 난을 당하여 인조는 公州로 피난하고 이괄은 宣祖의 第10子 興安君 璉를 추대하여 王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반란군은 張晩 휘하의 官軍의 반격으로 결국 격파당하고 이괄은 부하인 기익현 李守白 등에 의해 살해되고 한명련도 죽었다. 이 난은 국내적인 동요 이외에도 정묘란을 발생케 한 한 원인이 되었다. 즉 그것은 첫째 인조가 前朝의 光海君과 달리 明과 後金 두 나라에 대해 원한을 사지 않는 양면외교정책을 써지 않고 오히려 向明排金策을 써서 후금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둘째로는 이괄의 난 때 반란에 실패한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하여 광해군의 폐위와 인조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속히 조선을 칠 것을 종용함으로써 후금 태종으로 하여금 조선 침입의 결의를 더욱 굳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원한을 많이 사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서쪽 국경을 지키는 宿師들이 백성들로부터 軍糧을 收取함에 너무 가혹하게 징수하여 백성들의 재산이 고갈되고, 이로 말미암아 나라 안팎에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 이전부터 폐단이 심하였던 *號牌法 시행으로 백성을 강제로 구속함이 많았고,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고통이 컸다는 것이다.¹³⁾

이와같이 인조는 민생을 혼란케 한 책임을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돌리고 백성들에게 위난에 처한 나라를 앞장서 구해 주기를 역설하였다.

인조의 교서를 받아 읽은 적도는 虜兵이 침범했다는 報를 듣고,

형세를 틈탄 강포한 오랑캐 中華를 어지럽히고, 어찌 뜻하였으랴! 이제 또 조선까지 침범할 줄을. 임금의 빛나는 강기 아직 건재함이니, 하늘도 저 교만한 오랑캐를 물리칠 날 멀지 않으리.	強虜乘勢亂中華 豈意如今左海加 眞主皇綱猶有在 天驕豕突不能避 ¹⁴⁾
--	---

라하여 明나라를 공략했던 後金이 또 조선까지 침범한 것에 대해 비분강개하고, 그들의 만행이 임금의 밝은 강기에 의해 또 천의를 거역한 징벌로 격퇴될 것이라고 의분을 토하였다.

이렇듯 적개심으로 가득찬 그는 고을 士友들에게 忠義를 분발케 하기위해 강화도로 파천한 忠臣 사직의 위급함을 강제한 어조로 피력하였고,¹⁵⁾ 또 義所에 義旅를 불러 모으는 글에서는 국사가 위급

13) 문집 권3 창의록, 論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間良. * 호패는 조선시대 16세 이상된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로 이 호패법은 원래 도망자 사고자의 빠진 인원을 보충하고 隣徵 族徵의 폐단을 없애고자 시행한 신분증명을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국역을 피하기 위해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거나 또 호패를 위조 교환하는 등 불법을 행하는 일이 증가하여 제대로 공평히 시행되지 못하는 폐단이 생겼다. (國史大事典, 교육도서, 1655쪽 참고) 그리하여 인조는 이전의 구법을 폐하고 신법을 만들고자 諸道の 御使를 불러 호패법 시행을 罷하게 하고 호패로써 만들어진 軍籍을 불사르게 하였다. 또 전후 號牌事로 연루되었던 徒配刑者도 모두 용서하여 그들을 양민에 편입시키고, 이 가운데서 다시 良丁을 뽑아 軍役자를 충당케 하였던 것이다.(문집 권3 창의록, 論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間良)

14) 문집, 권1 시, 聞虜兵犯境

할 때 臣子들이 忠臣志士로서의 기백을 떨쳐 구국의 선봉이 되어줄 것을 고취시켰다.¹⁶⁾ 경상좌도 호소사 장현광의 천거로 의성 의병장이 된 그는 이렇게 못사람앞에 맹서를 하고 赴亂에 앞서, 장현광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가장 어려운 때 일을 성취케 하는 것이 병사와 양식을 모으는 일이라 하고 이러한 일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하였으며,¹⁷⁾ 경상우도 호소사 정경세에게 올린 글에서는 나라가 비록 朝暮의 위급함에 처하였으되 그 스스로가 군사를 모으는 일과 양식을 모으는 일을 곤장 조처하지 못하여 군사출발을 정한 날짜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상황을 알리고, 이후로 일어나는 나라 상황과 列邑의 動靜을 公文을 내어 알려주기를 요청하였다.¹⁸⁾ 한편 管餉使 李竣에게도 글을 올려 말하기를, 만일 적세가 치열하게 뻗어 아군이 오래도록 적과 대치하여 머물러 있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絶糧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길 요청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그는 관향사에게 募糧의 방법문제를 언급하였는데 그 요체는 모량을 강제로 하기보다 주민들을 설득시켜 義糧을 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¹⁹⁾ 臨亂에 앞서 이렇듯이 그는 募兵, 募糧 문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들은 이미 갖추어진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할 사안들인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이미 위급함에 빠진 나라를 그냥 좌시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관향사에게 며칠 후 군사를 출발시킬 계획임을 알려 후속조치를 — 本陣이 경유하는 해당읍의 주민들이 軍需를 협조할 수 있게끔 조처해주기를 — 요청하였던 것이다.²⁰⁾

적도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답신한 호소사 및 관향사의 글을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호소사의 공문을 보면, 첫째 열읍에서 각각

15) 문집, 권3 창의록, 通論一鄉士友文

16) 문집, 권3 창의록, 義所招諭文

17) 문집, 권1 書, 上旅軒張先生二

18) 문집, 권1 書, 與鄭愚伏

19) 문집, 권1 書, 與李蒼石(竣)

20) 同上

의병장을 뽑아 의병을 모으도록 하였고, 둘째 아군이 만일 적세가 치열하여 오랫동안 적과 대치할 경우, 募糧官을 보내어 군수를 돕도록 할 것이라는 격려를 해주고 있다. 이 公文에서 호소사는 특히 각읍 수령들에게 당부하여 그들이 鄉人을 잘 설득시켜 향인 스스로가 의량을 낼 수 있게 하도록 해주기를 촉구하였다.²¹⁾

다음 관향사의 公文에서는 읍민들 가운데서 募粟有司를 차출한 후, 그들로 하여금 동지를 모으게하여 모랑에 응하도록 하게할 방침임을 밝히었다.²²⁾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련의 公文을 받은 적도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나갔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첫째 호소사가 언급한 의병장 중심의 모병문제는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적도가 지금까지 의병장으로서 通文이라든가 유시를 통하여 적극적인 모병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모속유사 중심으로 모랑을 하게 한 관향사의 公文에 대해서는, 적도가 이미 차출된 모속유사들에게 말한 이른바, ‘각 면에서는 募糧都監을 차출하여 군무에 힘써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 향교·서원·鄉所 및 어른·젊은이들과도 함께 의논하여 이러한 실정을 알리고 그들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각각 곡식을 내게하여 資用의 얼마라도 미리 갖추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²³⁾라 한 것을 보면 모랑도감 하에 모속유사들이 모랑동지를 확보토록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셋째 적세가 치열할 경우, 모랑관을 파견하여 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이라는 호소사의 公文에 대해서는, 적도가 이미 군국의 급무가 모랑임을 알아 갑자기 외침을 당한 나라에 국고가 텅빈 것을 우려하고 이를 行在所에다 진언하여 모랑관이 파견되는 지원을 받았으며, 이로써 모속유사들에게 더욱 모랑에 진력토록 촉구한 바가 있다.²⁴⁾

적도가 이끄는 의병진이 이렇게 적진을 향해 진격할 준비를 마친

21) 문집, 권3 창의록, 號召使關

22) 문집, 권3 창의록, 管餉使關

23) 문집, 권3 창의록, 諭各面募粟有司文

24) 문집, 권3 창의록, 義所榜諭

후, 그는 출발전에 다시 한 번 우도 호소사 정경세에게 글을 올려, 의병을 모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였다.²⁵⁾

이후 그는 領軍하여 한 밤중에 말을 달려 출정길에 올랐었다. 이때 읊은 「倡義西赴途中口占」이란 시를 보면,

한 밤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칼날 마음을 품고, 義로써 西行길 오르니 한 목숨 가벼울 뿐.	中宵蹴起劔心盟 仗義西行一死輕
이 나라에 生長한 이 내몸 받은 은혜 두터우니, 나라 昇平 위해 보답할 일 그 무엇이뇨.	生長青邱恩渥裏 此身何以答昇平 ²⁶⁾

라 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렇듯 결연한 의지로 義戰의 壯途에 올랐던 그의 기상도 西赴 도중 들리었던 講和 소식에 그만 분안함으로 바뀌었다. 和議의 부당성을 피력한 상소문 일부를 적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 전에 일종의 망령된 의론이 조정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이른 바 나라를 위해 강화를 해야한다는 그 說입니다. 이 설이 먼저 평소 매우 신임받는 이들의 입에서 나와 임금의 덕을 그릇되이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일을 마땅히 처리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후세에 기롱과 냉소받을 일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아! 이와같이 하고서 나라를 보존하려 한다면 조종의 신령께서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으며, 또 이와같이 하고서 백성들을 보전하려 한다면 臣들의 마음은 어찌 즐겁겠습니까? 슬프다. 이러한 일을 가히 할진댄, 어떠한 일인들 차마하지 않으리오리오마는 臣이 가만히 생각컨댄 今曰의 이 화의는 도리어 후일의 禍本이 되어, 저 犬羊들의 무례한 버릇과 탐포(貪暴)한 짓하기를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성질을 반복되게 끝없이 저지르게 하여, 그 잔인한 짓을 더욱 심하게 할 것인 즉, 이렇게 화의를 한 것이 정말 중요사직을 위하여 그 마땅한 처사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또 나라를 위해 그 태평함을 열어 준 것이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臣같이 어

25) 문집, 권3 창의록, 「呈右道號召使(鄭經世)文」에서 적도는 각읍의 의병들이 忠君事君을 위해 향진할 충의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신들이 和議를 진행시키고 있음에 대해 대단히 통분하고, 이 화의는 구국일념으로 충 일한 本道の 多士를 믿는 임금의 마음과 각 義所에 내려진 兩道 號召使 및 관향사의 盡忠報國하라는 격려공문과 背馳됨을 역설하여, 우도호소사에게 奮進할 동지를 모음에 盡力하기를 당부하였다.

26) 문집, 권1 시.

리석고 게으른 사람은 평소 훌륭한 계획 한 번도 못내고 단지 옛 수레 바퀴만을 따왔던 사람이었기에, 스스로를 돌아보건데, 天意를 감동시켜 세도를 만회할 만한 능력을 갖진 못했습니다만, 백세 후에 또 다시 춘추가 일어난다면 과연 箠削을 어떻게 할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大明 中華의 周나라를 존상해야 할 것이오니, 바라옵건데 조속히 화의를 그치고 大義를 펴야 할 것입니다.²⁷⁾

和議派 대신들에 의해 체결되는 강화가 祖宗과 후손에 수치스런 역사를 만들 것임을 경고하고, 춘추대의에 입각한 尊周論으로 떳떳한 역사를 만들도록 화의를 罷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戰後에도 洛中諸友들이 小宴을 마련하여 초청하는 것을 사양하고, 그들에게 아직은 풍류를 즐길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흐트러진 생각을 갖지 않도록 경계함을 잊지 않았다.

나라를 걱정하고 시대를 슬퍼함에 절로 눈물흐르는데,	憂國傷時淚自然
한 밤중 홀로서서 龍泉劍을 어루만지노라.	中宵獨立拊龍泉
한강에 더러운 티끌 그쳤다 말하지 마라.	莫言河洛腥塵息
들판에 버려진 전사자의 해골들 어찌 차마 보라.	忍見郊原戰骨捐
宮에서는 원수를 갚을 날 계획하지만,	紫闕方懸越膽日
宋나라 임금(徽宗, 欽宗)도 *齊城에서 울지 않았던가.	齊城正泣宋皇年
내 원수와 한 하늘을 이고 있음이 부끄럽나니,	一天已愧暫同戴
신하들 어찌 취하여 풍류를 즐기리오.	臣子何心醉管絃 ²⁸⁾

* 宋末에 금나라 장수가 청성에서 宋나라 임금 휘종, 흙종을 사로잡은 일이 있고, 또 金末에는 몽고장수가 汴을 공격하고 청성에 이르르자, 금나라의 반란장수 崔立이 后妃와 諸王을 청성으로 보낸일이 있다.

난후에도 적도는 아직 강렬한 적개심으로 불타 한 밤중에 용천검을 어루만지는 강개함을 보이고 있고, 또 들판에 버려져 있는 전사자의 해골들을 보고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한데서 그의 憂國衷情이 더욱 깊게 나타남을 잘 알 수가 있다. 특히 그는 宋나라의 휘종과 흙종이 金나라로 부터 당한 치욕을 설욕

27) 문집, 권1 疏, 請罷和議疏(丁卯)

28) 문집, 권1 시, 賊退後洛中諸友有小集請邀遂詩以謝

하려했다가 도리어 그들로부터 靑城에서 사로잡혔던 것을, 정묘란 때 인조가 당한 江華島 屈辱事에다 비견하여 그 분완함을 토로하고, 臣子들에게 아직 辭興으로 현재를 평화로이 보낼 처지가 아님을 읊어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정묘란 시의 신적도의 의병활동을 살펴보았듯이, 그의 활동은 결국 講和로 인해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처사의 몸으로 倡義하여 위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출전했던 그 용맹함은 곧 안동처사충이 보여준 숭고한 義理의 한 국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의병활동 이후, 그가 패전국 조선이 겪어야했던 수모를 투철한 尊明義理로써 극복하려했던 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 그의 後金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3. 丙子胡亂 時의 義兵活動

병자호란이 일어난 1636년(인조14)에 적도의 연령은 63세였다. 이렇듯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향토 의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구국전선에 뛰어들기를 서슴지 않았던 忠義之士였다. 그의 활동양상을 「倡義日錄」(문집, 권4 창의록) 中心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그가 창의의 취지를 글로 써서 의성읍민에게 알린 날짜는 12월 20일이었다.²⁹⁾ 이 날 鄉人들의 합심 분발을 당부하며 적을 격퇴함에 죽음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는 적개심을 고취시키었다.³⁰⁾ 이틀 후, 향리인의 추대로 의병장이 된 그는 창의할 계획을 세웠는데, 향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募軍에 대해 의론을 하기 시작한 때는 23일이었다. 그들과 함께 적도는 약속을 엄정히 하고 기운을 매우 엄밀히 정하였다. 그러나 모군조항에 대해서는 전지역의 丁壯者들이

29)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 1일에 개전되어, 이듬해 1월 30일에 종전된 두달간의 전쟁이었다.

30) 문집, 권4 창의록, 論一鄉大小人員文(丙子). 이 밖에도 通諭道內文(문집, 권4 창의록)을 통해 道內人의 충의를 분발케 하기도 하였다.

이미 官軍에 편입되고 없음을 알고 남은 노약자들로 의병진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민하였다. 그러나 24일에 적도가 모속유사에게 군량준비를 하도록 유시하면서 ‘정묘란 이후로 흉년이 들어公私間에 창고가 텅텅 비었으니, 금일 군량을 모으는 일이란 정말 정묘년보다 더 어려움이 심할 것이다. 그러하니 비록 한 말, 한 섬의 곡식이라도 의량을 내어 숨김없이 군수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일일이 알리도록 하라’한 것을 보면 本陣(의성 의병진)은 이미 적도에 의해 조직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이튿 날 경상좌도 兵使 許完이 列邑에 군사를 일으켜 주기를 촉구하는 글을 보았고, 또 24일 짜 서울의 공문에서 이른바, ‘君父가 바야흐로 水火 가운데 처해있으며, 각 도에서는 勤王兵의 그림자조차도 없으니 이 위급함을 당하여 신하된 자들이 어찌 차마 이같은 수 있겠는가’라 한 것과 또 임금이 樓에 올라 애통해 하며 교시하기를 ‘한 모퉁이 孤城에 和平함이 이미 끊어졌으며, 안으로는 의지할 만한 힘도 없고 밖으로는 조그마한 援軍도 없구나’라 한 글을 보았다. 이 報를 들은 경상좌도 각읍 의병진은 火速히 發兵하여 朞日 그믐날 咸昌에 모여 王事를 돕기로 결정하였는데, 본진은 26일에 그 軍容이 대강 갖추어져 朞日 그믐날 각읍 의병들이 집결하기로 했던 함창을 향해 壯途에 오를 수 있었다. 이때 의병진 편대는 활을 쏘는 사람이 150여명, 포를 가진 사람이 230여명, 또 陣中을 지휘할 사람이 50여명으로 편성되어 도합 400여명이나 되었다.

이날 桃院에 도착하여 입수한 전황에 의하면, 적이 南門밖까지 침범한 이후로 通好를 요구하였다고 함을 들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戶判 金燕國을 보내었는데, 적은 오히려 10년 전의 정묘란 때 맹약했던 것을 조선이 배반하였다는 구실을 들어 이제 다시 화의를 하려한다 해도 어려울 것이다 라하였다는 것이다. 본진이 比安에 도착한 27일에는 경상좌도 각읍 의병진이 아직 출발을 못하였다는 報를 들었고, 이튿날 安溪에 도착하여 각읍 의병진이 비로소 出程했다는 보를 입수하였다. 이 날 적도는 胡賊의 勢가 펼쳐 일어남에

我軍에게 退縮之意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휘하 軍中에 승하기를 '仁이란 勇으로써 내는 것이 아니요, 義란 힘으로써 내는 것이 아니다. 각기 마음을 떨쳐 일어난다면 한 사람이 백명도 당해낼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할 게 있으랴'고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고무시키었다.

본진이 함창에 도착한 날짜는 이듬해(1637년) 正月 1일이었다. 이로써 본다면 가장 먼저 壯程에 올랐던 본진이 본도 각읍 의진과 함창에서 만나기로 했던 날짜를 넘긴 셈이었으니, 본진과 각읍 의병진은 함창에서 서로 만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초 3일, 본진이 鳥嶺에 도착하여 입수한 전황에 의하면, 忠淸兵使 및 都元帥가 적들과 黔丹山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모두 敗走하고, 모든 도의 의병들은 적세가 熾張하여 머물다 진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또 더러는 전진한 陣도 있었다고 들었다. 또 漢山에서 20리 떨어진 雙嶺에는 胡兵들이 길을 가로 막아 이곳을 통과할 수 없었다 하고, 조정에서는 적들의 방화로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뻗히고, 城中에서는 援兵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開元寺의 스님 두 사람을 보내어 進軍을 가뻐이 하지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水泔에 도착한 초 4일, 적도는 각읍 의병들이 쌍령에서 대부분 패하였다는 전황을 듣고 분개함을 터트리고, 이 날 본진에 糧餉이 공급되지 못할까를 걱정하여 의성 모량소에 公文을 보내었으며, 맏아들 揆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絶糧하는 일이 없도록 의성 모량소에 독려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³¹⁾

6일에는 秋院에 체류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官軍都總으로 領軍하여 出戰한 本邑人(義城) 金燁 3형제(金燁, 金煜, 金燦)가 全月 3日 쌍령에서 전사하였다는 報를 들었다. 이들 3형제는 적도와 같은 동향인으로 정묘란 때에도 적도가 이끄는 휘하를 좇아 종군한 바 있고, 병자란 때 역시 적도 휘하를 좇아 進軍하기를 원하여, 적도가 김엽을 관군도총으로 천거하여 함께 장정에 올랐던 武士들이다. 적

31) 문집, 권1 書, 寄伯兒揆

도는 이들 3형제가 거둔 쌍령전투에서의 전과와 그들의 절의를 후세토록 기리기 위해 亂後에 褒獎을 청하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미리 인용하여 그들의 전투에 임한 능률한 기상과 사후의 忠節이 적도에 의해 어떻게 顯彰되었는지를 살피면 아래와 같다.

쌍령에 이르르자 胡兵이 마구 밀어닥쳐 포성이 우리같이 들렸고, 쏘는 화살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김엽과 두 아우는 칼날을 아랑곳 않고 죽기를 맹세코 싸워 오랑캐의 모가지 수십개를 베고 또 오랑캐의 말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때 승세를 타고 돌진을 하였으나 말이 갑자기 적진으로 필적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그 형세가 다 됐음을 생각한 김엽은 두 아우에게 말하기를, '우린 평생 나라있음만을 알았지 가정이 있음은 알지 못하였고, 또 임금있음만을 알았지 자기 몸이 있음은 알지 못하였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때이다.' 하고, 이 세 사람 모두가 적에 저항하기를 굽히지 않다가 적의 해침을 받았습니다. 아! 위대하고 장렬토다. 김엽의 군센 녀은 골짜기를 가득 메워 거뒀지질 못하였지만 거친 산중의 여우와 새들이 장사를 지내었고 또 그 충성스런 녀은 바람속에 흩어져 위안받지 못했지만 古木위의 오작들이 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렬한 기품과 능률한 기상은 쌍령 골짜기에 죽지 아니하고, 그 忠의 꿈은 송백이 되고 절의의 군색은 바위가 되어 남아 있으니, 만일 세상의 신하된 자들이 그 아래를 지나게 된다면, 모두들 臨亂하여 구차히 죽음을 면하려는 마음이 일지 않게 될 것인 즉, 이것은 바로 이 사람때문이 아니겠습니까.³²⁾

라 하여, 쌍령전투에서 위용을 떨치고 빛나는 전과를 올렸던 이들 3형제가 모두 장렬한 전사를 하여, 비록 그들의 시체가 거뒀지질 못하고 쌍령 골짜기에 산화되고 말았지만, 호국의 녀이 된 그들은 후세의 신하들을 고무시켜, 만일 쌍령을 지나는 신하들이 있다면 이들 3형제의 義烈을 본받아 義를 發揚케 될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이후 본진의 도착지를 보면, 困酒店(7일), 杯酣(8일), 龍仁(9일), 漢山(10일), 한산체류(11일)로 되어있다. 한산에 체류하는 동안, 적도는 임금이 파천한 지 한 달여에 흑한과 기아속에 침구도 없이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忠憤의 눈물을 흘리었으며³³⁾ 또 파천 당시에 어

32) 문집, 권1 疏, 三烈士(金燁, 金煜, 金燦)褒烈上言

33) 적도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파천할 당시에도 뒤따르던 대신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義旅를 모아 행재소로 양식을 싣고 말을 달

가를 호종했던 季弟 悅道の 생사를 알 수 없어 매우 답답함을 느끼었다.

그가 간신히 南漢山城에 入城한 날짜는 13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조정에서는 和議를 진행시켜 崔鳴吉, 洪瑞鳳, 許儻, 尹暉 등으로 하여금 國書를 가지고 胡陣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 인해 각도에서 올라온 軍兵과 義兵들은 城中으로 入城함이 금지되고 다시 되돌아가야할 판국이었다. 이에 적도는 더욱 분개함을 견디지 못해 城中에 있는 斥和人 金尙憲, 鄭蘊을 만나 講和의 그릇됨을 力爭하고, 15일에는 급기야 和議를 罷하라는 소를 올려 강화의 그릇됨을 극언하였다. 이 소 역시 정묘란 때 그가 인조에게 올린 내용과 같이, 主和論者들에 의해 나라가 稱臣出降케 되는 모욕을 개탄하고, 尊華攘夷할 것을 역설한 것이다.³⁴⁾

이때 평소 雅分이 있던 斥和派 淸陰 金尙憲, 桐溪 鄭蘊, 龍洲 鄭綱과 서로 마주 보고 통곡을 하며 一絶을 읊기를 ‘화의를 배척함이 정말 堂堂한 일이거늘, 어찌 그대들은 화의하여 일을 그르치는가. 내 戰場에 나가 오랑캐를 잡고 화를 물리치려 했던만, 이렇게도 일이 거꾸로 되버렸으니 내 마음 정말 賈誼(前漢의 文人)의 심정과 같도다.’³⁵⁾라 하여, 淸나라와 一戰을 벌이려던 그의 결연한 의지가 화의파의 강화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것을 비탄하였다.

김상헌은 굴욕적인 내용으로 화의를 청한 최명길의 국서를 찢기도 하였으나 淸은 和好를 더욱 재촉하였고, 그 조건으로 斥和人 2·3명을 縛送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斥和人 尹煌, 尹集, 吳達濟

렸던 忠義를 드러낸 바가 있다. 아래의 시(문집, 권1 시, 上出都城向南漢併日 糶飯屢夜不寢群僚近侍或至凍餒云及此時臣子分義固勒兵投亂脫危殉節故遂料放 輸糧直赴行在)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내 분발하여 몇사람과 함께, 궁성을 바라보며 힘차게 말을 달리었네. 이 조급의 쌀이나마 어쩔 임금께 보낼 수 있으랴. 孤軍이라 宮城을 돕는엔 여의치 못하리라. 다만 나라를 憂愛하는 衷心을 품고, 함께 위난을 구할 생각뿐이로다. 눈길 속 찬바람을 내 어찌 꺼려하랴. 궁성에 당을 날만 기다리며 나아갈 뿐이로다’(奮身願與二三子 瞻望王居勇赴之 些米何能需御供 孤軍不合補京師 祇將憂愛羸衷乘 欲效巖危共濟思 踏雪衝寒吾豈憚 指期趁到九重扉)

34) 문집, 권1 疏, 請斥和疏(丙子)

35) 문집, 권1 시, 廣陵城吟示同義諸公. “斥和認是堂堂事 胡爾講和相反之 寒出慙夷抒禍耳 倒懸賈喻先符之”

등이 꺾하에 나아가 待罪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斥和臣을 박송할 마음이 없으니 卿들은 안심하고 물러나 있어라’ 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26일 江華島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간 사실(全月 22日 함락)을 알리며 강화도에서 포로된 大君의 手書와 尹昉등의 狀啓(강화도가 함락되자 尹昉등이 청나라에 간청하여 은혜를 배풀어 달라했던 글)를 보이고 出降을 독촉하니, 이로써 강화도 함락의 사실을 확인한 인조는 마침내 南漢山城 出城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강화도 함락시 이곳에 피난해 있던 嬪宮淑義·元孫·두 大君(鳳林大君, 麟坪大君)·駙馬·公主가 적들에게 쫓기어 넘어지고 혹은 붙잡히기도 하고, 강에 빠지기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분개하여 읊었다고 하는 다음의 시를 보면, 당시의 참혹상을 한 눈에 여실히 볼 수 있다.

天府沁都가 머무를 곳을 잃으니,
 세차게 솟아 오르던 長江도 흐르질 못하였네.
 파천한 임금의 수레 위태로운 城에 있으니,
 亂에 이르른 여러 군사들 어찌 잠시인들 쉴 수 있으랴.
 難을 평정치 못해
 胡然히 天府를 잃었네.
 빈궁이 놀라 엎어지고
 大君도 떨어져 넘어졌다네.
 길을 막아 죽임을 함부로이 하고,
 대문 가득 화살과 대포가 들이 닳쳤다네.
 行宮은 요원의 불바다가 되고,
 교외에는 넘어져 죽은 시체들로 핏물이었다네.
 잠잠한 굴속이 벼락치듯 소란했고,
 온 城은 피비린내를 풍겼다네.
 五胡의 난을 방불케 하듯,
 그 참담함은 二帝가 敗한 듯.
 오랑캐란 이같이 나쁜 놈들인가.
 下人들까지 이제 꿈꿨던데.
 임금께서 갑자기 몽진함에,
 臣民들은 魚肉이 되버렸으니,
 어느 때 밝은 운타고,
 저 북녘 오랑캐를 모조리 없애볼꼬.

天府沁都失所留
 長江瀉瀉莫能流
 鑾輿搖越危城岌
 赴亂諸軍詎少休
 莫是靖康難
 胡然天府失
 嬪宮驚顛倒
 大君亦隕越
 闕道屠戮肆
 填門矢砲突
 行宮燎火色
 郊原僵尸血
 潛窟霹靂喧
 滿城腥羶擊
 忽如五胡擾
 慘悽二帝北
 綠眼如斯否
 青衣今再繫
 至尊遼蒙塵
 臣民當魚肉
 何時明運振
 殄滅北種孽

저들의 命은 분명 오래 버려내질 못하리라.
 해같이 밝은 임금의 강기 살아 있으니.
 행재소 바라보며
 오랑캐 잡을 날만 기다리노라.
 아! 옥을 당한 임금생각에,
 서쪽하늘 바라보며 눈물 쏟네.

胡命未應久
 皇綱昭如日
 微臣望行在
 護指擒胡日
 篤懷主辱憂
 淚灑西向天³⁶⁾

강화도의 처절한 함락상을 읊은 윗시에서 적도는 淸나라에 설욕할 날을 기다리며 강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7일 인조의 남한산성 出城이 결정되던 날, 斥和臣 金尙憲은 끈으로 自決을 꾀하였는데, 다행히 傍人의 제지로 간신히 죽음을 면하였고, 鄭蘊 역시 임금의 옥당함을 슬피여겨 차고 있던 칼로 스스로 배를 찌르는 의분을 드러냈는데, 그 역시 방인의 제지로 죽음은 모면했으나 全身이 피로 낭자했었다. 이렇듯 斥和派의 나라잃은 통탄은 끊임이 없었으며, 사세 부득이함을 안 인조는 마침내 正月 30日 淸. 太宗에게 白旗를 드는 역사상의 일대 오점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적도는 2월 1일에 斥和諸公과 서로 마주 보고 통곡을 하다가 귀향길에 올랐으며, 의성에 도착한 날짜는 全月 9日이었다. 특히 귀향도중 三灘에서 하룻 밤을 유숙하고(7일) 이튿날 떠나면서 읊은시에 ‘바다같이 깊은 聖恩 헛되이 저버리니, 천지를 俯仰해도 내 마음 부끄럽네. 내 바라건데 향리 은둔처에, 明나라의 해와 달이 내 園林에 비쳐지기를’³⁷⁾이라 하여 삼전도 굴욕 이후 은둔하여 尊明義理를 지켜가려했으며, 귀향이후에 읊은 一絶에서도 ‘그렇되이 임금 은혜 두터이 입었다가, 돌아오니 부끄럽네 臣의 分이 성글었음어. 고향의 봄은 이미 저물어 가지만, 내 어찌 돌아감을 주저하리오’³⁸⁾라 하여, 청나라를 물리치지 못하고 돌아온 그 자신을 자책하고 은

36) 문집, 권1 시, 丙子十二月賊陷江都嬪宮淑義元孫二大君駙馬公主并入逼逐顯越或被搶掠投江云不勝悲憤

37) 문집, 권1 시, 到三灘有感. 聖恩虛負海量深 俯仰乾坤愧我心 望裏家鄉嘉遜處 皇明日月照園林

38) 문집 권1 시, 還鄉. 誤被天恩重 還慚臣分踈 故園春已晚 何用更躊躇

둔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 당시 그는 白軒 李景奭의 천거로 임금의 은전이 배풀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경석에게 和詩하기를 ‘무상한 벼슬바다 어찌 구차히 관심두랴. 농사일 가뭄이 여긴다면 뉘 다시금 받드오리. 갇혔던 物이 떠나는 大化를 입음에 그 은혜값긴 어려우나, 시골로 은둔함이 내 본래 뜻에 맞도다’³⁹⁾라 하여 벼슬을 거부하고 은둔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당세의 念을 끊고 鶴山 薇谷아래 ‘探薇軒’이란 小屋을 짓고, 날마다 『春秋』를 읽으며 悲惋의 뜻을 불었었다.⁴⁰⁾

‘채미현’에 題한 시를 보면, ‘띠집 깊은 곳 미곡 고사리 파릇파릇, 내 뜰고 뜰노라니 마음수양 절로 되네. 상상컨데 백이 숙제 품범 살아있고, 首陽山 빛에 화창한 봄날이로세’⁴¹⁾라 하여, 그 자신이 거처하는 미곡을, 은나라 伯夷 叔齊가 殷을 放伐한 周. 武王을 피해 수양산에 들어가 探薇로 연명하며 절의를 지켰던 것과 연결하여, 미곡에서 고사리를 캐며 조용히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을 수양산 채미에다 비견함으로써, 백이 숙제의 은나라를 明에다, 그리고 周나라를 濟에다 비유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윗 시는 신적도의 尊明排濤論을 은유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⁴²⁾

39) 문집, 권1 시, 和李白軒相公(景奭). 宦海桑瀾豈苟容 農虞忽沒更誰宗 執徐洪造 恩難報 隱約鄉山愜素慵

40) 「채미현기」(문집, 권2 잡저)에서 적도는 채미현이 있는 미곡 주위의 형승을 묘사하고 이곳을 眞隱者의 仙處가 될만한 곳이라 탄미하였다. 임진란이 일어난 19세 때는 부친(乞)과 伯父가 의려를 倡率하여 전장에 나가게 되자 그 스스로 식구들을 데리고 미곡 下城洞에 들어간 적이 있음을 회고하여 이곳 지리와 토속을 잘 알게 된 연유를 말하였다. 이후 정묘란 때는 旅軒·愚伏의 천거로 의병장이 되어 출전했다가 화의로 인해 그 뜻을 펴지 못했던 울분을 偉華攘夷의 義로써 피력하고 남귀하였던 일을 언급하였다. 이로부터 10년 후 인 병자년에 또 다시 오랑캐가 재침하였을 때 이전과 같이 의병을 일으켜 진군했던 일을 말하고, 이때 역시 강화체결로 그 뜻을 펴지 못했던 분완함을 華夷論에 입각하여 疏로써 극언한 후, 남하하여 이곳 미곡에다 은둔처(채미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41) 문집, 권1 시, 探薇軒 偶題. 茅亭深處谷薇新 探探饒吾養道眞 想像夷齊風不死 首陽山色保殷春

42) 그의 배척열은 이밖에도 미곡에 은거해 있을 때, 당시 斥和派로 대표되는 三學士가 청나라 瀋陽으로 불잡려감을 보고 읊은 시에서 ‘동방에 대의를 지

이상에서 신적도의 창의한 일과 의병을 진두 지휘한 내용을 「倡義日錄」 중심으로 살펴보았듯이, 그가 이끄는 의병진에서는 전투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다만 인조가 몽진한 南漢山城을 향하여 진군을 과감히 하였던 것만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창의일록」에 적과 항전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그의 의병활동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약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창의일록」에서 적도 자신이 언급한 의병진 편대를 떠올린다면 그 위용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갖추어진 듯한데 이와같이 義戰의 壯途에서 전투상황이나 전과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병자호란시에 이러한 점이 그의 의병활동양상에서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국충정의 발로로 창의한 그의 정신은 참다운 선비기질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또 난후에 배척의지를 은거로써 실천하려했던 것은 민족의 굴욕앞에 고뇌한 한 지식인의 양심을 대변한 분비물이었다고 하겠다.

년 이 그 몇이더뇨. 지금 행차는 곧 魯連(齊人 高士, 趙나라 平原君을 설복시켜 秦나라를 황제로 섬기지 못하게 하였다.)의 물가를 밟는 것이네. 푸른 물결에 눈물 뿌리며 이별할 제, 서넛하늘 지는 해에 슬픔이 북받치네.’(문집, 권 1 시, 送別三學士. 大義東方有幾人 今行直踏魯連津 灑淚蒼江分手去 西天落日倍傷神)라 하여,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斥和人 鄭籟에게 올린 편지에서도 이르기를 ‘저는 한 번 남귀한 이래로 薇山 깊은 골짜기에다 한 조그만 집을 지어 그 땅에 연유하여 정자 이름을 짓고, 나의 생을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귀는 들려 서북 소식이 들릴 때면 사람으로 하여금 분한 마음을 절로 격발케 합니다. 당시에 한 마음으로 맹세를 했던 사람들과 그날(同日) 함께 죽지 못하고, 마치 어느 섬에 쓰러져 누워있는 나무같이 남아버린게 한스롭습니다’(문집, 권1 書, 答鄭桐溪)라 하여, 민족의 비극을 당한 그날에 동지들과 함께 죽지 않고 이렇게 남아 목숨을 이어가고 있음이 매우 부끄럽다 하며, 더욱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예거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삼전도의 굴욕 이후, 쌍령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동향인 김업 3형제의 충절을 후세토록 기리기 위해 읊은 시를 볼 수 있다. 즉 ‘서쪽에서 날아든 소식듣고 정신이 놀랬거늘, 세 분의 꿈은 충절 그 죽음 또한 영화롭네. 듣노니 廣州에서 임금의 굴복한 일, 슬픈 눈물이 절로 갓근 적시네’(문집, 권1 시, 聞金燁至雙嶺敗沒. 西來消息膽魂驚 三子貞忠死亦榮 忍說廣陵城下事 不堪哀淚自沾纒)라 하여, 김업 3형제의 장렬한 전사를 삼전도의 屈辱事와 대조시켜 이들 3형제가 이렇게 피흘린 죽음도 아랑곳 않고, 나라가 삼전도 굴욕이란 비극으로 끝나야 했던 것을 통탄하고, 이러한 까닭에서 그들의 피흘린 대가가 더욱 숭고 장엄한 것으로 와닿았음을 토로하였다.

Ⅲ. 結 言

이제까지 16-17세기 퇴계의 제자들로 형성된 안동처사층의 한 사람인 신적도를 통하여, 개략적이거나 그가 정묘·병자호란시에 보이었던 의병활동양상을 고찰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으면 아래와 같다.

정묘·병자 양란시 향토 의성에서 포의로 창의하여 의분을 펼쳤던 의병장 신적도는, 학맥상으로도 퇴계의 문하를 출입하였던 梅堂 申元祿으로 부터 家學을 전수받고 寒岡 鄭逮의 門下를 좇아 수학함으로써, 퇴계의 再傳弟子 계열에 속한 안동처사층의 재야사람임에 분명하였다. 그 역시 여타의 안동처사들이 향촌의 재지적 기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향토 의성에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처사로서 학문과 후학양성에만 관심을 가졌던 평범한 在地 士族이었다. 이렇듯 향토에 우거해있던 그였지만, 나라가 정묘·병자호란이란 미증유의 국난을 당하자, 54세·63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적의 침입에 敢然히 맞서 싸울 의병을 조직하고, 의병장으로서 구국의 선봉이 되어 열렬한 忠節을 보였으며, 또 이들 전쟁이 後金이나 淸나라의 일방적인 요구로 화의가 성립되는 것을 민족적 굴욕으로 생각하고, 講和로 말미암아 後金과 淸으로 부터 당해야했던 민족적 굴욕의 상처를 투철한 존명의리로써 치유코자 했던 高節을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가 倡義한 정신과 和議의 부당성을 존명의리로써 논한 그 기상을 두고 이 『虎溪集』에 後叙한 姜蘭馨은 평하기를, 먼저 한 사람이 倡義之士로서의 임무와 斥和人으로서의 굳은 절의를 모두 보인 것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그의 창의를 용맹성을 병자란 때 창의하여 청나라와 과감히 싸웠던 영남의 沙西 全滉과 호남의 畸庵 鄭弘溟의 기상에다 비유하였으며, 또 그의 斥和精神을 三學士의 절의에다 비유하여 그의 大義·高節을 위대·숭고하다고 칭송하였다.⁴³⁾ 그리고 「行狀」을 쓴 金道和는

이같이 신적도가 양란 때 호병을 막는데 의연히 충의의 節과 적개의 勇을 보인 것에 대해 평하기를 ‘이것은 갑자기 얻어진 것이 아니요, 평소의 학문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님이 없을 것인 즉, 이것은 정말 梅堂 家學의 몇몇한 덕과 寒岡·旅軒의 가르침의 바른 것에서 나왔음이 분명하다’⁴³⁾고 하였다. 또한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찼던 그를 두고, ‘義城山林에 大明日月이라’⁴⁵⁾하여, 丙子亂 후 은둔하여 투철한 존명의리를 지켜갔던 그의 고매한 삶을 매우 예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의병활동상에서 나타난 충의와 존명론은 당시 안동처사층이 보였던 현실대응의식의 반영물이라해도 될 것인 즉, 그들의 의병활동은 곧 선비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도를 유학적 실천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존명론은 우리의 처사들이 민족적 울분을 씻게하는 한 방법론으로 생각한 것이니, 당시 안동처사들로 부터 표출되었던 존명론은 곧 우리 민족이 가졌던 排淸意志를 시대적 산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3) 문집, 권4 창의록, 後叙

44) 문집, 권5 부록, 行狀

45) 同上